

불가리아 경제 동향 및 전망

가. 경제성장률

- 2007년 이후 EU 자금 본격 유입 등으로 자본지출 및 투자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
- 2007년은 건설부문 및 투자활동의 활성화로 6.2% 성장하였으나, 2008~09년은 자본투자의 경제기여도가 줄어들어 실질 GDP 성장률은 보다 둔화될 것으로 전망
 - 실질 GDP 성장률(예상) : '07년 6.2%, '08년 6.1%, '09년 5.6%

나. 물가상승률

- 식료품 가격상승의 영향으로 2007년 9월에 전년대비 13.1% 상승(식료품, 비알콜 음료 가격이 주요항목으로 포함된 CPI는 같은 시기 25.7% 상승)
 - 2008년에는 경기안정으로 인플레이가 점차 감소될 것으로 전망
-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07년 8.2%, 08년 5.2%, 09년 3.8% 전망
- 물가 상승 요인
 - '09년 1월 EU가입에 대한 근로자들의 기대수준 상승으로 인한 임금상승 압박
 - EU 회원국 투자자들에 대한 부동산 매매 자유화로 인한 地價 상승
 - 외국인 직접 투자 증대시 고용 창출 및 임금 상승 예상
 - 가변적인 국제 유가 등 외부요인 등
- 물가 안정 요인
 - 지속적인 긴축 재정정책 추진
 - EU 가입 후에도 공공부문 근로자들의 완만한 임금상승으로 내수 확대 한계
 - 불가리아 정부의 임금상승억제정책 등

다. 유로존 가입

- 물가상승률이 너무 높아 단기간 내에 가입 예상 기준치 (약 2-3%)로 국내 물가를 낮추는 일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, EMU 가입은 2012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
- EMU 가입을 위해서는 최근 1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EU회원국 중 최저 3개국 평균치의 +1.5% 포인트 이내, 재정적자액이 명목 GDP의 3%이내 등의 엄격한 조건 이행 필요

【파리사무소 제공】